

## “ 당신의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

### ■ 이종윤 원로목사

목욕탕 고장을 수리하려면 배관공이, 의자와 테이블 수리를 위해서는 목수가 필요하듯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를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목회를 위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고 자긍하며 교회 성장 기술이 뛰어나고 현금개발에 준재면서, 비전 제시를 확실하게 하며, 재정을 잘 조절하는 관리형이라 한다. 지혜로운 카운슬러, 정확 무오한 예배 인도자, 성경 지식이 풍성한 학자, 성경 원어를 아는 언어학자, 영적 제사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해 주는 선지자, 교회의 과거를 잘 아는 역사가, 교인 가정을 친절히 심방하는 친구, 환자와 낙심자의 위로자,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로 성도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다하는 도고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관찰자, 특히 흥미있는 얘기를 하는 연설자,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상담자, 가르치는 교사, 영감있는 설교자, 복음을 항상 전하는 목회자란 성경이 제시하는 목회자 상이다.

그러나 이런 목사가 있을까? 인간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이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목사의 평가는 가능하고, 또 종종 지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 어떤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매우 우수하십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보이지 않는 약점과 허점은 있다. 목사에 대한 공격 평가는 지교회에 유익과 은혜가 된다. 그 평가를 통해 자신의 부족과 관심없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도 못한 채 성도들의 세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목회자의 자질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나 교회의 평가 기준과 방식은 다르다. 장로들조차 목회자의 사역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자격자가 많이 있을까? 하물며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은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를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한다. 양은 목자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당신 교회가 받은 복의 기회를 놓치거나 목사와 성도가 해야 할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목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라면 공격 평가는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강화될 것이다. 우선권 문제, 변경시킬 프로그램 등이 바뀔 것이다. 능동적 참여자에 의한 대화가 확대된다. 교회의 교제가 강화됨으로 성숙한 교회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특정 전략과 그 수행의 필요성을 찾게 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가 더불어 효과적 사역자가 된다. 목사는 항상 존경의 대상이고 성도의 삶의 모델이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가정에 대한 교회의 관심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는다. 목회자는 자신에 대한 공격 평가 과정을 불필요한 불쾌감이나 무익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간의 평가가 그것도 더 좋은 교육이나 기술도 경험도 부르심도 없는 성도들에 의한 평가는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까지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타인의 평가로 확인되었다.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 일을?” 그때에 사울에게 교회와 공격 교회의 회원들에 의한 확인과 판단이 있었다. 마치 목사 후보생, 성도, 노회가 함께 후보생의 믿음과 은사와 자기부인의 완전의탁을 평가하여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안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 평가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가로부터 그 부르심은 쓰임 받게 되는 것이다. 목사의 다양한 사역들이 잘 수행되고, 다른 이에게 평가받거나 자신에 의해 할 필요가 없는 이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목사는 그들의 설교는 평균점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평균 이상일 수도 있다. 그것이 사실일까? 통계적으로 오류가 많다. 절반은 평균 이하다. 자칭 지도자라는 이들은 대개 평균 이하다. 표준에 이른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아무튼 목사의 사역은 평가 받는 것이 좋다. 평균 이하의 목사가 교회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빈약자나 흔들리는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자기 안의 도전이나 밖의 지도자들의 도전을 통해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 “목사를 평가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 19:20)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목사의 의무다. 목사가 자기를 과신하기보다 교회가 목사를 평가케 하는 제도가 필요치 않을까? 그때 “우리 목사님은 안녕하십니까” 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608호] 2018년 9월 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Dong Woo Park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Mark 14:46-52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They All Left Him” ..... Pastor
* Hymn .....	484 (Be Thou My Vision)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b>우리의 비전 (vis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li> <li>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li> <li>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li> </ul>	<p>서울교회 QR코드</p>
---------------------------------------------------------------------------------------------------------------------------------------------------------------------------------------------------------------------------------------------	------------------

<p><b>부 목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p>	<p><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p><b>선교사</b>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영림, 김택수(군선교)</p>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b>서울교회</b></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b>이종윤</b>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	------------------------------------------------------------------------------------------------------------------------------------------------------------------------------------------------------------------------------------------------------------------------------------------------------------------------

##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

■ 출 3:13-15, 4:10-13, 행 2:36, 마 7:21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조상,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와서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와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학대로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스라엘을 직접 구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물으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물었고,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1. 우리의 주(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 개인의 생사화복,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은 창조적 주권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가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은 모세 뿐 아니라 바로도 움직이시는 권세 있는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질문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임재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꺽터에서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부활 하신 주는 ‘살려 주는 영 (Life-giving-spirit)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와 같이 지배(control), 권세(authority), 임재(presence) 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주가 되고, 우리 교회의 주가 되고, 우리 민족의 주가 되십니다.

**2.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언제 누가 주(主)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2:36).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성부성령과 동등한 창조주 되신 주(主)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가장 낮아지셨고, 부활, 승천 하시고 높아지기 시작하시며 주 되심이 충분히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와 부활 승천으로 높아지셨을 때의 사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롬 6:4, 요 17:14-5)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는 분으로서의 주 되심과 종보자로서의 주 되심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맺는 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절대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민족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 승천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피조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그 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요, 그 분이 영광중에 다시 오시어 나를 부활, 승천케 하실 것입니다. 통치자, 심판자로 오실 주님, 종보자, 변호인으로 오실 그 분을 향하여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기원과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은 2:9)

지난 주 이종윤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최광성 장로	목 도 .....	다 함 계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이강진 장로	성 시 .....	인 도 자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이재홍 장로	찬 송 .....	다 함 계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찬 송 .....	288(204) .....		다 함 계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3:1-2...	인 도 자	기 도 .....			김종철 집사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성 경 .....	마 2:1-12 .....		인 도 자
* 찬 송 Hymn .....	다 함 계	찬 양 .....			찬 양 대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계	설 교 .....	”구원의 빛“ .....		설 교 자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5(시 149)...	다 함 계	* 찬 송 .....	84(96) .....		다 함 계
* 송 영 Doxology .....	다 함 계	* 축 도 .....			설 교 자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주기도송 .....			다 함 계
찬 송 Hymn .....	다 함 계	찬 송 .....	20(41)...		인 도 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인 도 자	레1:3, 히4:14-15, 요1서 2:1...			다 함 계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계	봉헌 Offering .....	다 함 계		다 함 계
* 봉헌송 Offering Hymn .....	다 함 계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김서윤1 권사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찬 양 .....	성 경 .....		인 도 자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계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중윤 목사		설 교 자
(The Priesthood of Christ)					
* 찬 송 Hymn .....	다 함 계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		장석남 목사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계				

## 수 요 예 배

## 새벽기도회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헨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2. 전도위원회 연합월례회 / 11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3. 수능기도회 / 15일(목) 오전 8시30분 101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버디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노선균(흉부외과)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공민호(신경외과)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배명우 군(배호성 집사, 신광순 권사의 차남)과 박연정 양(11교구 박광식 집사, 박현영 권사의 장녀) / 11월17일(토) 오후 5시30분 더채플렛칭담 6층 채플홀(421-1121) / 강남구 선릉로 757(논현동 94-9)</p>
-------------------------------------------------------------------------------------------------------------------------------------------------------------------------------------------------------------------------------------------------------------------------------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24명	223명	218명	1,365명	137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11/4)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1월 4일	헌 금	51,835,600	
	찬양운영비		6,910,000
	교회학교운영비		150,000
	성 례 비		288,000
	경 조 비		460,000
	비전2020		3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16,300
	교통통신비		444,360
	수도광열비		18,050
	차량유지비		760,694
	환경유지비		61,600
	수선유지비		2,151,820
	식당운영비		1,260,440
	합 계	51,835,600	12,901,264